

즐거로운 적극행정 공무원

< 8.24일 금주의 주인공 >

주인공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박준희, 외교안보정책관실 임효진
“청년 단수여권을 폐지, 13만명의 불편을 해소했어요” □ (상황)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은 5년짜리 복수여권 대신 1년 단수여권만 가능 → 프랑스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불편 ○ 이를 개선하려고 외교부와 병무청이 협의했으나, 병역회피자 관리 문제에 이견이 있어 5년간이나 합의점을 못 찾음 □ (적극) 국조실 임효진 사무관이 이를 <u>청년정책으로 풀자고 제안</u> + 박준희 사무관이 <u>청년의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수차례 조정회의로 해법 도출</u> * 청년 1백명/연 통제를 위해 8만명이 불편을 겪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·재정낭비, 해외징병제 국가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례가 없고,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(제한) 등 청년의 삶 관점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함 초래 ☞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 결정 → 청년 13만명의 불편을 해소	

주인공	경북 상주시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이효정
“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 프로그램개발, 효율 높이고, 불편 줄이고” □ (상황) 농촌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신청, 담당 공무원이 1:1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 □ (적극) 함창읍 복지센터 이효정 주무관은 <u>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</u> ○ 신분증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입력 시 출력 버튼만 클릭하면 단 10초만에 신청서 및 위임장이 출력, 신청인이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는 <u>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</u> ☞ 1인 접수 대기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 이하로 대폭 단축, 국민 불편 해소	